

터무니없는 비난, 아니 정당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면 누구나 화가 나게 마련이다. 그 화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평소 진심(真心)에 대한 수행을 쌓아 온 사람이라면 어지간한 비난이나 비판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능력과 자신감이 넘치는 무명하고 당당한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할 것이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난이나 비판에 '발끈'하는 사람은 능력과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 등 여러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감추려 든다.

'부시의 푸들'이라는 교육적인 빈정거림에도 태연했던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은 예는 자유민주주의의 성숙도 높은 영국적 사회분위기가 만들어 낸 것일 터이다. 기원전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페리클레스 등 권력자가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수단이 비판'이라며 그들에게 비판의 자유를 존중해 주었다는 것은 바로 능력과 자신감에서 나온 예가 될 것이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 비판자를 원천 차단한 로마 황제가 적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현장의 눈' 감으라는 소리가

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비판의 자유 존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열한 비판정신은 불교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마경>이다. 이 경전에서 유마거사는 아라한이 경지에 들어가 있는 부처님의 심대제자 한 명 한 명에게 혹독한 비판을 가한다.

그렇게 당한 제자들은 부처님에게 "유마거사를 감당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거사의 병문안을 회피하려 한다. 성인반열에 든 사람이야 해도 이처럼 자신에 가해지는 비판을 두려워하는 데 평범한 속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속세

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과 권위가 언론의 바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취임 초부터 언론과 각 세우기로 유명세를 더한 현 정권이 그 말기인 요즘 '취재하지 말고 부르는 데로 받아쓰라.' 식의 언론활동 제약을 시도하고 있다.

각 부처에 있는 기사실을 통해 합하고 상주기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사실 운영시스템을 바꾸며 담당공무원 직접취재는 원칙적으로 불가, 모든 취재를 공보관 실을 통해 하도록

하며 등등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언론의 접근을 그야말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어쩌면 해외로피 김으로도 모자람이 없을 듯한 이러한 조치를 왜 하는 것일까? 무엇을 그리 덮어두어야하며 무엇을 그리 감추어야하는 것일까?

19세기 프랑스 문호 발자크는 '기자의 본성에 관한 보고'란 글에서 부정적인 기사 상을 혹독하게 나무라고 있다. 신문기자가 눈살위윈, 사장까지 했던 현장의 눈으로 비판한 것이니 반론의 여지도 없다.

'정치드라마의 연출자' '힘없고 고립된 사람들을 향해서만 자유롭게 말하는 기자.' '정전만 할 줄 아는 무비판의 기자' 등 10여 년 전에는 미국의 한 사회 비평가가 '보도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게으른 기자'에 대해 쓰기도 했다.

현 정권의 언론 정책은 바로 위에 지적된 기사상을 되살리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 언론인의 자질을 몇 세기 전으로 되돌리고 차원을 한참 낮추겠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에 내놓은 언론정책은 국민들에게 정권 스스로의 무능과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종교자유' 칼럼

류성태 목사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위험 무릎쓰고 제자의 종교적 고민과 함께한 스승

2004년 대광고 강의석 군 사건의 본질은 종교 강요로 인한 인간의 행복추구권, 특히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교육현장을 고발한 것으로, 수십 년 동안 시한 폭탄 같이 잠재해 있었을 뿐 언제든 터질 것으로 예견된 사건이었다. 한 고등학생의 엄청난 회생에 의해 그동안 숨겨져 왔던 학교 내 종교 인권이 사회 이슈화되기는 했지만, 자신의 직장과 신분까지 내던지면서까지 제자를 감싸 안고 보호하려 했던 스승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는 한 분을 잊을 수 없다. 바로 사건 당시 대광고 교목실장 류성태 목사다.

류 목사는 개인의 이익보다 기독교와 사회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양심적인 지성인이요, 용기 있는 실천자였다. 성실한 교사이자 성직자였던 그가 99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돌보기도 하면서 거대한 종교권력과 맞서서 개혁을 내서는 험난한 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독교에 대한 애정과 대광고에 대한 신뢰가 누구보다 깊었던 그것기에 보수 종교집단의 잘못된 방향을 안타까워했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 수 없었을 것이다. 강 군 사건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함께 겪어내며 '의식개혁 없이 기독교가 과연 예수님의 근본정신을 이 사회에 펼쳐낼 수 있을 것인가' 깊은 고민을 했던 것이다.

예배 선택권에 대해서 류 목사는 "선교의 적

극성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단과 교회전체의 이해와 양해 없이는 학교장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며 학교의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기독교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강 군이 퇴학 처리 되었을 때도 그는 "명백히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며 대광고의 설립 이념과 목적을 오히려 정면으로 거스르는 비교육적·반종교적 처사로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까지 개탄하였다.

한편 강 군이 한참 단식 중이던 2004년 10월 대광고원 이철진 이사장과 류성태 목사 간 주고 받은 공방은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자체로 기억될 만한 유명한 사건이었다. 학교 법인 측은 류 목사에게 보낸 '경고의 말씀'에서 "목사이며 종교교사로서 직무 수행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엄중히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류 목사는 "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생각되어 쟁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다.

첫째, 학생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아무리 기독교 학교라도 학교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기관이지 교회가 아니다. 학생을 특정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광고 전 교목실장 류성태 목사는 '학교입장'의 반대편에 섰다가 직위해제됐다.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박했다.

둘째, "기독교 선교활동에 해를 끼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선교활동에 해를 끼쳤는지, 대광고의 완고한 교리적 신앙이 기독교의 참다운 선교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 되 물고, "서구 신학에서는 이미 논의가 끝난 낡은 교리적 신앙관으로, 어찌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류 사랑의 정신이 그토록 배타적

인 것인지, 인류 문화의 찬란한 금자탑을 쌓은 다른 훌륭한 종교 전통들을 모조리 배격하고 오로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 개신교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목사로서,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 주류 개신교의 행태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천만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며 어린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목사는 학교 방침과 정반대의 입장에 섰다는 이유로 교목실장직에서 직위해제 되었음은 물론, 스스로 1985년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 목사직을 반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월 27일 아예 교사직마저 그만둔 14년간의 교목생활을 강경함으로써 학교 내 종교자유 문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장본이기도 하다. 교단을 떠난 그는 학교 앞에서 노점상도 해보고 평신도 법인이 '새길기문화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내기도 했지만, '종교'라는 울타리마저 류성태라는 '자유인'을 가둘 수 없었는지 최근에는 내면의 세계를 정리하며 글 쓰는 일에만 몰두하며 지내다고 한다.

어느 시대나 선각자는 자신을 먼저 양심의 소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고, 아직 각성되지 않은 당시에는 항상 오해와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다. 흐린 물을 맑히는 데는 맑은 물이 넘치게 하는 도리밖에 없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종교자유인'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는 프란시스 폴 발타리의 말이 새삼스럽게 귓가에서 맴돈다.

불자의 눈

봉축행사는 '일회성' 아니다

이제 한 바탕의 잔치는 끝났다.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 날을 전후로 전국에서 펼쳐진 봉축 행사와 법요식이 막을 내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불자들은 이 한바탕의 잔치가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자신이 바로 부처임을 자각하고 부처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발원하는 순간이 바로 부처님이 오신 순간임을 불자들은 잘 알고 있다. 봉축기간에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와 법회는 그러한 발원을 보다 견고하게 다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일상화 하자는 의미를 갖는다.

올 봉축행사는 전반적으로 아름다웠고 흥겨웠다. 축제는 축제 그 이상의 감흥으로 불자들의 가슴에 아로새겨져 신행을 촉진하는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고 각종 의식들도 장엄하고 엄숙하여 불자로서의 바른 삶을 발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올 봉축 행사는 다양성이 돋보였다.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을 위한 각종 행사들이 펼쳐졌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의 실천도 어느 해보다 두드러졌다. 장애인을 위해 수계 법회를 베풀 것도 매우 뜻 깊은 봉축행사였다. 지역에서도 봉축 장엄등을 화려하게 밝혔고 이웃을 위한 봉사 나눔의 행사를 다양하게 펼쳤다. 전국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부처로 살기'를 발원하는 열기로 넘쳤다.

특히 서울에서 펼쳐진 연등축제의 경우 외국인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제 한국의 연등축제는 외국에서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연등축제를 비롯한 각종 봉축행사는 해를 더해 갈수록 장엄하고 내실을 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봉축행사를 연례행사로 인식하는 것은 위험하다. 봉축행사는 때가 되면 한 번씩 치르는 행사가 아니다.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이라는 말이 있듯이 매일이 봉축행사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봉축행사처럼 장엄하고 아름답고 깨끗으로 가는 노력의 시간이어야 한다. 때문에 봉축행사는 한 차례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 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증폭해 나누는 촉진제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하겠다.

이 점은 봉축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주체들이 먼저 명심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이라거나 '일회성'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불자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비불자를 불자로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모든 행사는 참가자와 관람자의 입장에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참가 대상이 불자라고 하여 비불자들을 소외시키거나 포교효과를 포기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봉축행사는 불자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행사를 관망하는 비불자들이 환희심을 일으켜 불교로 귀의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때 행사의 의미가 더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종단과 단체 지역의 사업연합회 등에서 과감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봉축기간의 여러 행사들이야말로 온 불교계에 화합의 계기이고 포교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원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원(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랑인의원의 윤랑원장은 수십년 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들과 정진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원(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원(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이만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환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원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는 분 - 기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퇴행성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보조사과 이후에 통증을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랑인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 이 간지방간경화 염간염 간경화 간(肝)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도종 웅담과 비경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참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참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참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참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됩니다. 참다슬기 기름: 참다슬기 15kg을 황이리에 넣고 원거 97마리를 달은 뒤 원거에 불을 붙여 그 열로 참다슬기 기름이 끓어오르면 원거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참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원거가 다 터져야 거기까지 교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초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선정: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신마를 토종 (민속농원)

속독·한자·독서(논술) 강사과정모집 창업, 취업, 보람찬 교육자의 길 교육도 품격이 있습니다 ● 속독·한자·독서(논술) 교육을 한꺼번에 습득 ● 효과가 검증된 발명특허된 획기적인 영재교육 ● 전문교수반 원로, 초보자도 능력있는 강사 될 수 있음 ● 각 학교 특이적성교육, 공부법, 교습, 학원 등 강사 절대 부족 ● 등록기간 : 2007년 5월 23일부터 선착순 50명 ● 교육기간 : 일요일반 - 6월 24일~ 9월 2일 오후 4시~7시(주1회, 11주) 월요일반 - 6월 25일~ 9월 3일(주1회, 11주) 아침반-10시~12시, 저녁반-7시~9시 ● 수강료 : 60만원 ● 지원자격 : 본 교육에 관심 있는 분 ● 입학안내 : 신현은 308-01-179614 (경기도 사회교육원)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02)390-5260 ~ 2 문의: 담당교수 016-595-1137 부산·영남지역 교육 동아대 사회교육원 (051)240-8452~6 문의: 담당교수연구실(051)243-1137, 016-595-1137 (교육일: 금요일반, 토요일반)

녹음-레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 특강 안내 易學은 본래 어려운 학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古典 命理學자들이 주장하는 格局과 用神 때문이다. 四柱는 단지 陰陽五行의 변화법칙일뿐 格局과 用神을 몰라도 정확하게 운명을 감정할 수 있다. 著者 역시 30여년간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해답을 얻지 못했다. 太極四柱는 命理學을 보완한 것이다. 古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렵고 오판과 실수가 많지만, 太極四柱는 감정이 정확하고 논리가 정연하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난다. 녹음-레이프로 하루 한 시간씩 독학(獨學)으로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 감정하므로써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命理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스스로 인정할 것이다. 이번에 발간한 增補 太極四柱는 前日에 著者가 출간한 太極四柱를 획기적으로 수정, 보완(修正, 補充)한 것이다. (안내서 무료배부) ●주문방법: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강사: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테이프 16개와 教材 포함 : 20만원 (단, 신 및 포교사는 15만원) ●계좌번호: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080-322-4684)